

# 봄내음 물씬... 동구로 '예술여행' 떠나볼까

## 인문학당

동명동 근대가옥 리모델링 한·일·서양 건축양식 혼재 가옥

## 여행자의 집(ZIP)

관광객·광주 시민 등에 체험형 관광 콘텐츠 등 제공

## 총장22·미로센터

예술의 거리·총장로 중심에 리모델링한 도시재생 공간

## 무등산 중심사길

드영미술관 등 갤러리 밀집 '운림동 미술관 거리'로 불리



동구 여행자의 ZIP 2층 라운지 모습.



동구 인문학당 전경. 광주 동구 제공

지난해 개관한 '동구 인문학당'은 옛 전남도청의 공무원이었던 김성채씨가 지난 1954년 지은 근대가옥을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한국식, 서양식(이탈리아), 일본식의 건축양식이 혼재된 이 건물은 김성채씨의 후손이 머물다 빈 곳으로 버려져 있었다.

동구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면서 철거될 운명이었지만,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근대가옥을 보존하자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동구만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동구 인문학당'은 기존 근대가옥을 리모델링한 본채, 새로 증축한 인문관과 공유부속으로 이뤄졌다. 마당에는 온돌을 연결하던 굴뚝과 장독대 터를 활용한 작은 연못이 있다. 곳곳에 작은 그림과 오브제를 새겨 넣었으며 누구나 다실과 본채

다락방을 채운 만화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락방 음악여행, 채식 요리 수업 '기후밥상' 등 주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현재 인문관에서 '추억의 소년 소녀 도서전'이 진행 중이다.

인문학당과 멀지 않은 곳에는 여행자들의 공간인 '여행자의 집(ZIP)'이 있다. 이 건물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27년간 전남도 교육감 관사로 사용됐던 곳이다. 한때 광주 걸스카우트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동구는 관광객과 일반 광주시민들이 이곳에서 광주의 관광 콘텐츠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자의 집(ZIP)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관광안내센터(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등) △지퍼샵(광주 기념품 판매) △웰컴라운지(실내라운지·실외테라

스) △지퍼 펜트리(식료품 제공) △여행자 연구소(사무·회의공간) △무등의 공간(기념 포토존)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무료로 지퍼 펜트리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고 여행 일회용품도 챙길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형 관광 패키지 'ZPT'에 참여하고 다양한 광주여행 미션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예술의 거리 중심에 있는 '미로센터'와 총장로 중심에 있는 '총장22'는 동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이다. 한 미술학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미로센터는 무등갤러리, 극장, 책방, 야외공연장 등이 혼합된 문화공간이다.

총장로 22번지에 있는 총장22는 폐업한 지 오래돼 도심 흉물이었던 간장공장터와 도매상이 건물을 활용한 곳이다.

총장22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 전시공간과 지역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공간 22개, 공유 오피스,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1층에 총장로 역사를 설명한 여러 전시품은 덤으로 관람할 수 있다.

두 건물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예술가 활동 지원, 주변 상가와 콜라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동 거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간 대여는 각각 홈페이지에서 가능

하다. 무등산 중심사길에는 국윤미술관, 우재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드영미술관, 의재미술관 등이 줄지어 있다. '운림동 미술관 거리'라고도 한다. 특히 영원한 젊음이라는 뜻의 '드영(de young)미술관'에서는 박지택 화백의 기증작품전 '심상의 세계'가 진행 중이다. 원로작가 박지택이 미술관에 기증한 다수의 작품 중 12점과 그가 새롭게 제작한 신작 17점을 통해 오랜 시간 미술계에 몸담은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화운동 광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광주극장, 총장공예갤러리, 비움박물관, 은암미술관, 시인 문명란의 집, K-POP 스타의 거리 등 동구지역 봄 여행 콘텐츠는 다양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운명의 여신이 안내하는 '봄의 합창'

##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 작품 '카르미나 부라나'

광주시립합창단의 제192회 정기연주회가 '운명의 여신이 안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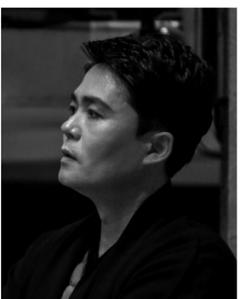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 작품 '카르미나 부라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채운, 20세기에 만들어진 클래식 중 최대 히트곡 '운명의 여신이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담아 대구시립합창단을 초청,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작곡가 칼 오르프가 극장 공연용으로 만들었다.

'카르미나(Carmina)'라는 용어는 '카르멘(Carmen)'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라틴어다. 매우 세속적인 의미에서 '노래'라는 뜻을 지닌다. 중세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수도승들이 하루 일과를 끝낸 후, 엄격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제192회 정기연주회에 출연하는 왼쪽부터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강동명, 바리톤 염경목.



어 '봄의 노래', '목장에서', '선술집에서', '사랑의 딸', '블랑지플로와 헬레나' 등의 테마로 70분 러닝타임을 꽉 채운다.

지휘는 상임지휘자 김인재가 맡고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강동명, 바리톤 염경목, 광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전석 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62-613-8245)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 담양 담빛영화관, 문화회관 개관 기념 무료상영

### 오늘부터 31일까지 5편 선배 선착순 현장 발권 관람 가능

담양군과 담빛영화관(주댕스코·사진)은 담양문화회관 개관 기념으로 27-31일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 행사는 담빛영화관 옆 담양문화회관이 1년5개월간 증축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을 기념해 문화회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화관을 홍보하고 군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제80기 국악문화학교와 제37기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문화학교는 오는 4월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정가 등 9개 과목을 초·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더불어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도 진행되며 가야금, 해금 등 2개 강좌가 개설됐다. 강좌는 오는 4월10일부터 6월28일까지 12주 과정이다.

수강생은 각 강좌당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국악문화학교의 민요, 판소리 과목은 각 4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

다. 수강료는 각 강좌당 5만원이며 1958년 12월 이전 출생자는 3만원에 수강 가능하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4월7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이이남 작가,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고향인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 작가는 담양에서 태어나 조선대 미술대학 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명화를 차용한 디지털 아트 등으로 세계적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벨기에, 중국, 독일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고 800회 이상의 그룹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관객들이 작품 앞에서 5분 이상 머물러 '5분의

미학'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이 작가는 "담양은 태어나서 자란 동네일 뿐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담양 발전에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이남 작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며 "담양을 빛내주는 이 작가의 행보를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오른쪽) 작가가 최근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뒤 이병노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